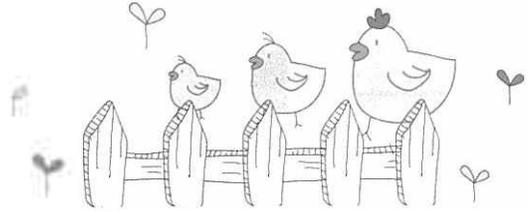


가축 사육의 질을 결정짓는 '환경'



축산관련종사자 교육교재 (2012 농림축산식품부 외 5개 기관)

최근 공장식 가축 사육이 일반화되면서 가축 사육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. 이렇게 불완전한 환경에서 자란 가축은 건강에 해를 입기 때문에 가축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비단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. 잘 먹고, 잘 쉬어야 건강은 물론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가축. 그렇다면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?

- 온도 : 가축이 가장 성장하기 좋은 환경은 외기 온도가 5~25℃일 때다. 가축은 외기 온도가 27℃ 이상으로 높아지면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고, 35℃ 이상이 되면 사료섭취를 거부하고 음수마저 기피하면서 탈진하게 된다.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여름철 폭염 시에는 가축 사육 환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■ 축종별 적정온도 및 상한임계온도

구분	한·육우	젖소	돼지	닭
적정온도(℃)	10-20	5-20	15-25	16-24
상한임계온도(℃)	30	27	27	30

- 습도 : 가축은 더습한 겨울철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. 고온다습한 날씨에 환기까지 되지 않는 축사에 오래 방치하면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. 특히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 습도가 높고 축사 바닥 깔짚이 축축하면 암모니아,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.
- 햇빛 :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D를 합성하고, 저항력을 키워 튼튼한 가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. 번식활동에도 관여해 암소의 경우 난소와 자궁 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.
- 물 : 신선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야 가축은 최대한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. 따라서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항상 공급해 줘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한다면 급수용으로 적합한 지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필요하다.
- 환기 : 축사 내 환기는 매우 중요하다. 환기가 잘 되면 축사 안의 공기 흐름을 좋게 해 냄새가 적게 나고 건물 수명을 연장하며 셋바람을 줄이고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사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.
- 유해가스 : 암모니아, 이산화탄소,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가축 생산성 저하는 물론 식욕감퇴와 두통, 현기증, 흥분, 불면증, 폐렴의 위험이 높다.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연적, 강제적 방법을 사용해 유해가스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.
- 먼지 : 다양한 요인에 의해 축사 내에는 먼지가 발생한다. 먼지가 과도하게 많으면 가축 성장이 지연되고, 호흡기 질병과 유해 세균의 감염이 높아지므로 환기시설을 통해 먼지를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. **특히**